



① 순직선원위령탑 ② 의료지원단참전기념비 ③ 제1주차장 ④ 제7주차장 ⑤ 정문 ⑥ 열차 승차장 ⑦ 간이운동장 ⑧ 구명사 ⑨ 태종대
⑩ 6.25첨전유적지비 ⑪ 등대 자갈마당 ⑫ 영도등대유람선 ⑬ 신선바위·망부석 ⑭ 주전자섬(생도) ⑮ 전망대(모자상) ⑯ 남항조망지
⑰ 태원자갈마당 ⑱ 바다조망지 ⑲ 태원유람선 ⑳ 곤포유람선 ㉑ 김자자갈마당

영도등대



동백나무 숲을 따라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 보면 해기사 명예의 전당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가쁜 숨을 돌리고 숲의 정취를 느낀 뒤 나무계단을 따라 조금만 더 걷다보면 영도등대가 나옵니다. 영도등대는 1906년 12월에 설치되어 100년이 넘는 현재까지 부산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박이 영도등대를 지표로 부산항을 찾아오고 있으며 2004년 새롭게 개관하면서 항로 표시시설, 자연사박물관, 해양도서실, 해양영상관, 갤러리, 전망대 야외공연장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등대 오른쪽으로 신선바위와 망부석이 있어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태원자갈마당



태종대 비경 속에 스며있는 이야기를 찾아가기 전 아담하게 바다를 품고 있는 자갈마당을 먼저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누비열차 승강장 오른쪽으로 나 있는 오솔길을 걸어내려 가면 몽글몽글한 자갈마당이 나옵니다. 자갈마당 앞으로 생동감 있게 펼쳐진 바다에는 상선이 손에 달을 듯이 떠 있어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갈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소리가 마치 가야금 소리처럼 들려 찾는 이들에게 한껏 운치를 더해 줍니다. 유람선 선착장도 가까이 있어 바다 위에서 태종대의 비경을 한눈에 즐길 수도 있습니다.



태종사

해안 순환도로 끝자락에 위치한 태종사는 1983년 스리랑카 정부에서 증정 받은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사리는 보금 내부 사리탑에 모셔져 있는데 스리랑카 스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리수나무 2본도 생육하고 있으며 줄로 당겨서 치는 특이한 형태의 범종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태종사는 7월에 열리는 수국축제로도 유명한데 일본, 네덜란드,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묘목을 들여와 40여 년간 가꾸어온 200여종의 만개한 수국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명사(求命寺)

구명사는 1969년 해안 작전으로 개설 시에 순직한 육군 장병 네 사람의 영령을 봉안하기 위해 1976년에 군 지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현 전망대 휴게소 절벽을 이용한 염세 자살자가 많아지면서 불도로 설득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명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전망대 자살바위 위치에 천막으로 지어진 절이었으나 현재는 그곳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전망길 216번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자상과 더불어 구명사는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고귀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종대 위치도



신선바위

등대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넓고 풍광 좋은 바위가 보입니다. 그곳이 신선 바위입니다. 신라시대에는 풍월대라고 불렸으며 신선들이 모여 노닐었을 만큼 아름다운 절경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지요. 옛날에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도 전해지는데 선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바위에는 아이의 태를 끊은 가위와 살徘徊의 흔적, 그리고 출산한 선녀의 오른쪽, 원쪽 무릎이 닿은 흔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이나 이곳에서 빌면 순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태종무열왕이나 조선의 태종과 같이 삼국을 통일하거나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을 큰 인물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망부석

신선바위 곁에서 수평선을 보며 훌연히 서있는 망부석은 슬프고 애절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신라 놀지왕 때 박제상은 일본에 볼모로 있는 왕자를 구출하고 자신은 체포되어 죽음을 당합니다. 박제상의 아내는 이곳에서 왜국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그대로 돌부처가 되었다는 애틋한 사연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곳은 왜구가 자주 출몰하였으며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잦았다고 합니다.

이후 왜구에 끌려간 지아비를 기다리는 장소로 알려지고 이 바위를 망부석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육안으로 대마도를 훤히 볼 수 있어 간절함을 더해줍니다.



주전자섬

바다에 우뚝 솟아있는 주전자섬은 말그대로 형태가 주전자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섬 주변으로 파도가 거세 마치 섬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인다고 생도(生島)라고도 표기 합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솔을 담아두던 그릇을 닦아 그 속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곳에 용변을 보거나 불을 피우는 일은 금했다고 하는데 신선 바위에 머무는 할배가 벌을 내려 큰 재난을 당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고 아담한 이 섬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고기가 잘 잡혀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전망대



다누비 순환열차를 타고 첫 번째 정류장에 내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전망대입니다. 해안 절벽에 서 있는 전망대는 타원형 유리 건물로 지어졌으며 모던한 건축물임에도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곳이지요. 완만한 곡선이 해안선을 연상시키며 푸른 바다와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두루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 찍기에도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전자섬을 중심으로 대마도와 형제섬 그리고 거제도와 나무섬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 내부에는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자상

전망대 앞에 설치된 모자상은 세상을 비관하여 삶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세운 조각상입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두 아이를 품고 있는 모자상은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다시 한 번 삶의 희망을 갖게 만드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항조망지



순환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바다를 향해 평상처럼 펼쳐진 전망대가 나옵니다. 부산의 대표 향구인 남항의 수려한 경관과 송도 일원의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전망대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거제도까지 볼 수 있으며 푸르른 바다를 배경으로 소중한 사람과 한 컷 추억을 남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태종대를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주차장 맞은 편에 조성된 의료 지원단 참전기념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난민구호와 전상자 치료를 위해 파견된 덴마크와 인디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다섯 나라의 숭고한 업적을 찬양하고 길이 기념하기 위해 1976년 조성되었습니다. 퇴역 군인과 외교관들이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종대의 수려한 경관을 돌아보기 전, 이곳에서 잠시 전쟁 당시 유엔의 결의와 적십자정신을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순직선원위령탑



순직선원위령탑은 해양 개척의 웅비를 품고 오대양 개척에 도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선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1979년 건립된 위령탑입니다. 오대양 육대주를 형상화한 기단은 위령탑에 모셔진 흔령이 깃들어 쉬는 곳을 상징하며 기단을 중심으로 다섯 날개에는 선원들의 삶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총 9,117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으며 매년 음력 9월 9일 중앙절에 위령제가 열립니다.



공원개방시간

- 개방시간 : 하절기(04:00~24:00) 동절기(05:00~24:00)
- 민간인 출입통제 : 군작전을 위해 등대, 해안가 등 20:00 이후부터 통제

유람선 투어

- 이용요금 : 대인-10,000원, 소인-6,000원
- 운행구역 : 선착장에서 조도 부근 왕복
- 문의
 - 곤포유람선 : 051-405-2900
 - 태원유람선 : 051-403-9098
 - 은하수유람선 : 051-405-3989

교통 편

- 부산역 출발 (호선 9번 출구) ⇨ 시내버스 66, 88, 101번
- 남포동 출발 (호선 6번 출구) ⇨ 시내버스 8, 30, 66, 88, 186번

태종대유원지

[49127]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24(동삼동)
태종대유원지사업소 : T. 051-860-7866 <http://taejongdae.bisco.or.kr/>
다누비열차 및 주차장 운영·관리(부산관광공사) : T. 051-405-8745-6